

2018년 2월 선교소식

Bwana asifiwe!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오늘도 선교사역을 위하여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동역자님들과 교회들께 안부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들어선 후방의 날씨로 인하여 한 분도 건강 잃지 않고 강건 하시길 기도 합니다.

이 곳 탄자니아 특히 인도양과 밀접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요즘 더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후방의 식구들이 주시는 용기로 인하여 승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늘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 주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월 소식을 나눕니다.

[탕가 신학교]

모든 학사일정이 짜여진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중간 시험을 모두 마쳐가고 있으며 23일 금요일에는 친목을 다지는 운동회 날입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이지만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머리띠를 두르고 갖 가지 운동을 통하여 친목을 나누게 됩니다. 이어서 한 주 후인 3월 2일에는 탕가 신학생과 리빙 스톤 학교 스텝 간의 친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후에는 함께 저녁을 나누고 신학생들이 저녁 채플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가족애를 나누며 돈독한 믿음을 쌓아가는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남학생 기숙사 지붕 함석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는 이미 2년 전에 보내 주신 비용에서 남은 금액으로 제일 오래된 건물부터 시작합니다.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되기때문에 일 하는 형제들의 열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선교사 부부 신학교 동문 방문]

지난 6일 출발하여 16일에 안전하게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총 3600여 km를 운전했는데 정말 탄자니아는 큰 나라임을 실감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인도양(동쪽)에서 정서쪽인 탕가니카 호수 근처에 위치한 Kigoma 라는 도시까지 다녀왔습니다. 오가면서 중간 중간 다른 도시들을 들러 동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22명의 동문을 만났고 교회 6곳과 4곳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장시간의 대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연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 가지만 학업 기간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재정적 어려움, 교회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고충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이어 나가야 했던 그들과 그들의 가정. 이제 그 어려움을 딛고 힘차게 사역하는 그들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탄자니아 Dodoma 주와 Singida 주 등, 2개 주의 교회들을 책임 맡아 Bishop(감독) 으로 수고하는 동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문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 1). 3일 걸리는 그 먼 지역에서 신학을 하기 위해 우리 탕가신학교까지 오기로 결정한 것.
- 2). 먼 거리 버거운 여행 경비 마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3년동안 포기하지 않은 점.
- 3).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 외롭고 염려가 많았을텐데 3년 동안 잘 견디고 공부를 마친 점.

제가 이런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런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열심들을 몰랐을텐데 막상 다녀보니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격려를 받을 만한 것 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 상 깊은 시골까지 각 동문을 모두 방문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 하여 반가이 환영해 주었던 그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한 신학교를 세워주고 적은 학비를 내고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후방의 모든 후원자와 기도로 늘 힘이 되어주는 모든 분들께 꼭 감사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회의 파송을 받은 저희도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2차 여행은 중간 방학이 끝난 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1) 지난해 4학년 국가시험 결과

2017년 졸업생들의 국가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결과보다 약간 못미치는 결과를 얻었지만 모든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탕가 주에서 4등 전국에서 103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향상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고등학교 기숙사 건축

이제 거의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내부의 일들을 다 끝내려합니다. 남은 일들이 작은 일들이지만 구석구석 신경 써야 할 일들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3) 조그마한 work shop 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수원 서부교회 (이준호 목사님)에서 목공일에 필요한 기계 구입을 위하여 헌금 하셨는데 그 기계들을 사용하며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기숙사에 필요한 옷장과 책상이 이곳에서 처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고등학교 신문광고 일과 목공에 필요한 기계 구입을 위하여 고태일 선교사님 내외분과 1박 2일 일정으로 다르살렘을 다녀 오게됩니다. 안전속에서 모든 일 잘 보고 돌아올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2018년도 고등학생 모집

탄자니아는 7월 초부터 고등학교 학사일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 리빙스톤 과학고등학교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1차 입학시험이 있어 신문과 학교 웹사이트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소식]

지난번 교회 건축이 끝난 마굴라 산골 교회 전도자 사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붕을 올리

게 됩니다. 건축에 소용되는 경비 역시 서울 신성교회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도제목들]

1. 탕가신학교 동문들의 건강과 목회를 위해서.
2.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3. 리빙 스톤 고등학생 모집을 위해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8년 2월 23일

탄자니아 탕가에서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